



위기임신 · 보호출산 지원 위한 핫라인 구축 맞춘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북 특별자치도가족센터(우소영 센터장)가 지난 24일 유관기관 6곳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통합지원을 위한 핫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은 6개 유관기관은 기쁨의하우스, 1308위기 임신부상담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누리의 집,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이주민푸른여성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 및 보호출산이 필요한 임신부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체납차량 · 음주운전 지자체 합동단속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은 비(雨)가 예상되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25일 장수로 진입하는 길목인 장수 톨게이트 부근에서 상습 과태료 체납차 및 음주단속 등을 전격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장수군청(4명)은 입구에서 과태료 30만원 이상, 자동차에 2회 체납차량 등을 자동식별장치를 통해 단속하면서, 동시에 경찰(5명)은 고위험 차량(대포차) 및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하였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단순체납자는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자에 대해서는 변호관 영치 및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말하면서,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는 사기 및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므로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세대공감 투웨이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4일 장수 치유의 숲 및 장수군 일원에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세대공감 투웨이 멘토링(Two-Way Mentoring)’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일하는 방식과 성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MZ세대와 기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멘토 1명과 멘티 4명, 담당자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해 △사전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방향 공유(소방서북카페) △장수 치유의 숲 체험을 통한 친밀감 형성 등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간 △최종 피드백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새만금세빛발전소,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실천

미성동 취약계층에 3000만원 지정 기탁... “지역민에 사랑받는 기업 될 수있게 노력”

〔새만금세빛발전소(대표 이진규)가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000만 원을 25일 지정 기탁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에 자리한 1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장으로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환원 사업의 하나이다.

미성동은 전달된 성금을 협의체가 추진 중인 자체 특화사업에 활용하고, 지역 내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진규 대표는 “우리 회사가 번 이익을 주변 지역민을 위해 돌려드리고, 어려운 이웃의 적극적인 돌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용배 위원장도 “고독사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돌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새만금세빛발전소의 기탁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현재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대표 특화사업은 ‘이웃애(愛) 이웃을 더하다’와 ‘워킹투게더 동행투어’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복지사업이다.

먼저 ‘이웃애(愛) 이웃을 더하다’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저소득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들이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반찬 제공,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성동과 지사협은 이번 기탁을 통해 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특화사업인 ‘워킹투게더 동행투어’는 교육 급여 수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여 롯데월드 관람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 역시 기탁금으로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체험을 늘리는 한편, 예체능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협의회 개최

20여개 기관과 전북형 워라벨 만들기 박차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5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5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의 추진,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전주·익산·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은요양병원,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앙내일센터,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등 총 20여 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도·기업·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의회 회의를 통해 재단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생활균형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bwf.or.kr)나 전화(063-254-3820, 253-3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금동,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 추진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관내 1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응과 관련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시설 점검과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조치하기 위해 마련, 냉방기기 가동 상태, 식수 비치 등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정 사항도 안내했다.

어르신들은 동장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골목길 소독, △슬레이트 철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항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 차단 행위 근절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통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 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 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 ·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시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정은)가 25일 2층 회의실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례회의에서 20여명의 지역발전협의회 임원들은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세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3제5회 검산동 동민의 날 행사 진행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 동민의 날은 검산동의 모든 동민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특히 새롭고 특색있는 행사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 어른스들의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전통놀이, 전 연령이 어우러져 흥을 돋울 수 있는 마을별 장기자랑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사를 채우려 한다. 또, 다양한 행사로 재미와 즐거움을 잡고, 더불어 맛있는 음식까지 알차게 채워 함께하는 동민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